

# 광주시향 단원 85명 중 16명 부적격 판정

## ■2011년 정기평정 결과

### 단원들 수준 향상 기회... 강도 높은 물갈이 주장도 노조 "평정기준 불공정"... 심사결과 분석 대응 마련

지난해 실시된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크리스티안 루트비히) 정기 평정 결과 단원들이 무더기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연초부터 시립교향악단이 술렁이고 있다. 광주시향은 물론이고 시립예술단체에서 단원들이 무더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21조 '정기평정'에 따르면 '출연직 단원의 정기평정은 매년 11월~12월 실시하며 예능평가와 근무실적 평가로 진행된다'고 규정돼 있다.

시립예술단체를 이끌고 있는 광주 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 광주시립합창단 등 6개 예술단체 단원들을 대상으로 정기평정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합창단 등 5개 단체는 재평정 대상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광주시향의 경우 85명 가운데 무려 16명에게 부적격 판정이 내려져 재평정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중에서 단무장, 기획홍보, 악보계 등을 제외하고 순수 예능평가를 받는 단원이 79명인 점을 감안하면 재평정 단원 비율은 더 높아진다. 특

히 지난해 8월 루트비히가 공개 오디션 실시해 뽑은 8명의 20~30대 신입단원들 중 '부적격'을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 단원들의 비율은 더 높아진다.

광주시향은 지난해 5일과 6일 이틀간 광주문화재단에서 81명의 단원을 대상으로 정기 평정(예능평가)을 실시했다. 이날 평정은 현악과 관악 두 파트로 나눠 진행됐으며 평정위원으로는 루트비히와 현악·관악 파트에서 각각 3명의 외지 전문가 등 4명이 참여했다.

광주시향은 타 단체와 달리 조례 개정을 통해 점수제 대신 '적격', '부적격' 판정으로 재평정 대상을 선정하며 평정위원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재평정 대상이 된다. 이같은 시스템은 구자범 전 상임지휘자가 만들어놓은 것으로 구자범은 2010년 단독으로 평정을 했다.

이날 평정 결과 재평정 대상은 현악 10명, 관악 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일부 파트의 수석·차석 연주자 6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차석의 경우 연주 능력이 현 지휘에



지난해 진행된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평정 결과 16명이 재평정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적합한 지로 '적격' 여부를 정했다.

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제26조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1차 경고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고, 재평정 후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단원에게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처분을 요구한다. 이후 징계 처분이 종료된 3개월 이내에 재평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단원을 해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주시향에 비롯한 예술 단체의 평정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터라 이번 평정의 결과가 어떨게 마무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계에서는 일부 단체들의 실력

이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이번 '무더기 부적격 판정'을 시립예술단원들이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한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강도 높은 물갈이'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평정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4명이 심사위원이 독립적으로 '적격' '부적격'을 판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합의제'로 판정을 한 점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립예술단 흥영식 노조위원장은 "실력 없는 단원들까지 다 끌어안고 가는 게 노동조합은 아니라고"고 지적하고 "이번 평가가 의혹 한점 없

이 누가 봐도 공정했어야 하는데 이번 시스템은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흥영위원장은 또 "전례 없던 결과가 나온 만큼 지휘자가 평정의 기준이나 평가에 대한 의견을 먼저 전해야 한다"며 "심사 결과표 등을 분석하고 문예회관이나 단원들과도 지속적으로 대화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단원 재평정건은 예술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과정이며, 부적격판정을 받은 단원은 이번 평정을 계기로 더욱더 실력향상에 정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스승과 제자가 함께 고향서 작품전

양규철·제자 11명, 6일~2월13일 강진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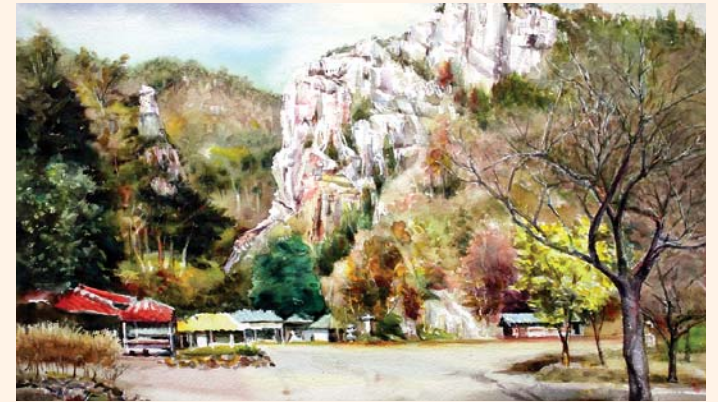
강진아트홀은 오는 6일~2월 13일 원로 수채화가 양규철씨와 그의 제자들의 작품을 모은 '사제지간, 양규철과 제자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양씨의 작품과 그가 근무했던 강진중·도암중 등을 강진 출신 제자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훈·김홍두씨를 비롯해 김종안·조영길·윤영필·이호국·송철중·김종호·윤세운·김하기씨 11명의 제자 작가들이 참여한다.

양씨는 물과 색이 만나 빛내어는 단아한 색채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계곡의 아름다운 풍경과 시골 마을의 고즈넉함이 화폭을 장식한다.

그는 세계 수채화대전, 대한민국수채화대전 등의 단체전과 9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미술, 한국수채화협회, 대한민국 수채화작가협회, 황도회, 광주·전남 수채화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1-430-5761.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양규철 작 '금곡사 풍경'

##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현 지휘자 이어진 재위촉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에 현 이어진(사진) 지휘자가 재위촉됐다. 광주시는 2일 이 같이 결정하고 이 지휘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문화예술회관 지휘자선정 자문위원회는 "이 지휘자가 지난 2년간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획기적인 무대연출로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 낸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소년소녀합창단원의 기량향상에 부단히 노력하여 그 수준을 한층 높인 점 등이 인정돼 연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휘자는 전남대 예술대와 같은 대학 음악대 학원을 졸업한 뒤 LIST FERENC ACADEMY OF MUSIC(합창지휘)을 연수했다.

광주시립합창단 상임단원, 광주광역시 방송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거쳐 2010년부터 현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다. 한편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의 임기는 2년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을 한국 문단 장편소설 풍성

등단 50년 황석영 신작 '이야기꾼' 등... 단편·시집도 기대작 많아



황석영, 광재구, 이승우, 이기호

새해, 황석영·광재구(순천대 교수)·이승우(조선대 교수)·이기호(광주대 교수) 등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의 책이 잇따라 출간된다.

특히 새해에는 장편 기대작들의 출간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한국 문학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한다.

먼저 올해 등단 50주년을 맞는 황석영은 구한말을 배경으로 한 신작 장편소설을 선보인다. '이야기꾼'에

관한 이 소설은 일간지 연재를 거쳐 연내 출판사 '자음과모음'을 통해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중견작가 성석제와 은희경, 김영하도 올해 나란히 새 장편소설을 펴낸다. 성석제는 계간 '문학동네'에 연재 중인 '위풍당당'을, 은희경은 계간 '창작과비평'에 연재 중인 '태연한 인생'을 각각 묶어낸다. 김영하는 '퀴즈쇼' 이후 5년 만에 새 장편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제)'를 선보

인다. 김연수는 몇 년 전 청소년문학 계간지 '꽃'에 연재했던 장편 '원더보이'와 계간 '자음과모음'에 연재 중인 장편 '희재'를 올해 함께 책으로 출간한다.

이밖에도 이승우, 조정란, 정찬, 고종석, 정지아, 이은준, 최재훈, 강영숙, 심윤경 등이 올해 새 장편소설로 독자와 만난다.

이기호, 편혜영, 백영옥, 정한아, 한유주, 안보윤, 조현, 전아리 등 젊은

작가들의 장편 출간도 예정돼 있다.

젊은 작가들의 경장편을 잇따라 출간하고 있는 믿음사는 새해 김사과, 김주희, 이지민, 조해진, 노희준 등의 경장편을 내놓을 계획이다.

단편집의 경우 김애란이 '침이 고인다'에 이어 세 번째 작품집을 문학과지성사를 통해 펴낸다. 전경린, 하성란, 이혜경, 김중혁, 이홍, 서유미, 김현영, 김유진 등도 그간 발표한 단편집을 올해 책으로 묶는다.

시집 가운데에도 기대작이 많다. '사평역에서'의 광재구 시인이 아주 오랜만에 창비에서 새 시집을 낸다. 광재구 외에도 신경림, 이시영, 백무산, 문인수, 김사인, 문태준, 김선우, 진은영 시인 등이 올해 '창비시선(詩選)'을 한결 풍요롭게 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영, 안도현, 장석남, 박상순, 성기안, 이은준, 이원, 이근화, 김근, 김연 등의 새 시집도 올해 만날 수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초대전 지원단체 공모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은 지역 미술 단체 2개를 선정해 초대전을 지원해주는 '2012 초대전 지원단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법인 단체, 비법인 동호회도 가능)면 참여 가능하고 회화, 조각, 디자인, 공예, 서예, 사진, 설치, 수석, 식물, 패션 등 분야 제한도

없다. 하지만 최근 3년 이내 상록전시관 초대전에 선정됐던 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16까지 신청서와 전시기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선정된 단체는 전시장 사용료와 대관료가 면제되고, 작품관리와 홍보 등이 지원된다. 문의 062-613-5391.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한정식 전문 레스토랑 **아리랑하우스**에서 맛있는 떡국 드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3인이상) A코스 - 38,000원 B코스 - 33,000원 C코스 - 25,000원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신년 모임을 위한 떡국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http://www.geumsoojang.com)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